

멕시코에서 보내는 선교편지

★ 2026년 9월호 ★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이제 한 해의 열매를 기대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판단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마7:20)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남은 한 해를 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지난 한달간의 사역보고와 소식을 전합니다.

✦ 파시피코 교회 사역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이곳에서도 휴대폰이 생기면서부터 어린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이 정말 너무 힘들어 졌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시던 다른 분도 이젠 더 이상 어린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파시피코 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초청하면 제법 모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주일에 출석으로 연결되기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제 방학이 지나가고 다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호세 목사님은 천천히 주님께서 일 하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한국인 답게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저는 막상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조급함을 내려 놓고 현지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호세 목사님과 교인들은 이 사역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 되리라 믿습니다.

✦ 마약 재활센터 사역

9월 첫주에는 호세 목사님과 파시피코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세명의 성도님들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현지 분들이 유창한 언어로 입소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난 주에는 한인교회분들이 오셔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입소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머물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이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이들이 사회로 돌아갈 때에 그 속에서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에스파놀 학교(문맹퇴치 사역)

벤디시온 교회에는 학년이 높지만 아직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에스파놀을 가르치기로 하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0살이 넘었지만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글을 가르치려 했었지만 도무지 관심도 없고, 부모님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우러 오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해오고 하니 진행이 안된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가르친다고 하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처음 2명을 시작 인원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6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곳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을 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라 차로 다니기도 쉬운 곳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매주 화, 수, 목 3일간 집중 학습으로 5주 정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5주 후에는 읽고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즐겁게 상상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에스파놀 가르치기

벤디시온 교회 어린이 사역

✦ 성경교재 보급사역

벤디시온 교회는 저희가 보급해준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어린아이들 반은 교회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큰 아이들과 청소년반은 사모님과 목사님이 나누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교재를 잘 사용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 설교 사역

지난 첫 주일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마약재활센터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 선교센터 건축

선교센터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싶지만 아직 공사를 위한 건축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건축비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정 세우기 사역

이곳에 있는 동료 선교사와 함께 가정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 저희도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할 현지 목회자분들과 기도하며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첫 줌 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곳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가정 사역을 해 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해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몇주간 세미나와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강의에 참여한 커플들에 한해서 멋진 결혼식을 다시 올려주는 사역입니다.

몇 개월간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되고 이 일을 통해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 지기를 기도해주세요.

예수사랑! 사람사랑! 예수증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10:13)

✧ 한국 방문

저희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 선교단체가 4년마다 진행하는 선교대회가 부산에서 있어서 대회 참여 차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하여 건강검진도 하고 교회에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곧 만나 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주셔서 일정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네 딸 이야기

첫째 하연이와 셋째 하은이는 다시 2학기가 시작되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둘째 하진이는 미시간에 잘 도착해서 적응하고 있으며 병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경력도 쌓을 수 있기에 좋은 기회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된다는 말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내 하민이는 고된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생전 처음 해 보는 아르바이트로 낯설은 모든 것들에 적응 하려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껏 늘 곁에 누군가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자 있으려니 심적인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민이가 아직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를 만나지 못 했습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 파시피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호세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 ✓ 재활센터의 입소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회계, 설교와 찬양 인도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 ✓ 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 ✓ 어린이 성경교재를 받은 7교회와 40명의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 ✓ 선교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 ✓ 시작되는 가정 사역에 꼭 필요한 현지인들이 동참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 ✓ 네 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는 딸들이 되게 하소서.
- ✓ 저와 아내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